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공동대표: 김종배김형국박상중 110-734 서울시 종로구 인곡동 175-87 인국빌딩 5층 전화: 723-5300 / 팩스: 723-5055  
초안하호텔 PSPD,니우누리유니텔: 참여연대 / 전자우편:pspd@soback.kornet.nm.kr /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koreanet.org/~pspd/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 사회부  
발 신 참여연대(정책실장 김민영 : 723-5052)  
제 목 참여연대성명-김종필총리지명자의 용퇴를 촉구한다  
날 짜 1998. 3. 3. (총 1 쪽)

## 보 도 자 료

### 김종필총리지명자의 용퇴를 촉구한다

총리서리체제의 출범은 파국적 상황을 해결하는 합리적 대안이 아니다.

김종필총리 인준문제를 둘러싼 여야의 대립이 파국적 상황으로 치달으며, 새정부는 급기야 총리서리 체제를 출범시키기에 이르렀다. 신성한 민의의 전당에서 몸싸움까지 벌이며 오직 정치적 쟁투로 일관하고 있는 여야 정치권은 국민들의 비난의 목소리에 귀를 닫고 있다.

안타까울 따름이다. 손가락에 끼였던 가락지를 빼서 나라를 구하고자 했던 촌로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했다면 국민을 대변하는 여야 국회의원들이 과연 그럴 수 있을 것인가. 국가적 위기와 국민적 고통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파당적 이해만을 좇아 국정을 내팽기치고 있는 이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과연 그 어느 국민이 용납할 수 있겠는가.

참여연대는 김종필씨가 강도높은 구조개혁을 추진해야 할 새정부의 총리로서 적합하지 않으며 그 인준에 반대함을 거듭 천명한 바 있다. 더욱이 우리는 IMF사태라는 초유의 국가적 위기상황을 맞이하여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국력을 모아야할 지금 이 시점에 이런 파국적 상황을 초래하면서까지 굳이 김종필씨가 총리가 되어야 할 합리적 이유를 알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이라도 김종필총리지명자가 국가의 안위를 염려하는 대승적 자세에서 용퇴의 결단을 내릴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더불어 위헌소지가 있는 서리체제의 출범은 파국적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따름이며 국민적 동의를 얻기도 힘들 것임을 강조하고자 한다. 개혁을 이끌어갈 국민의 정부로서의 김대중정부의 총리지명은 지금이라도 원점에서 다시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끝.